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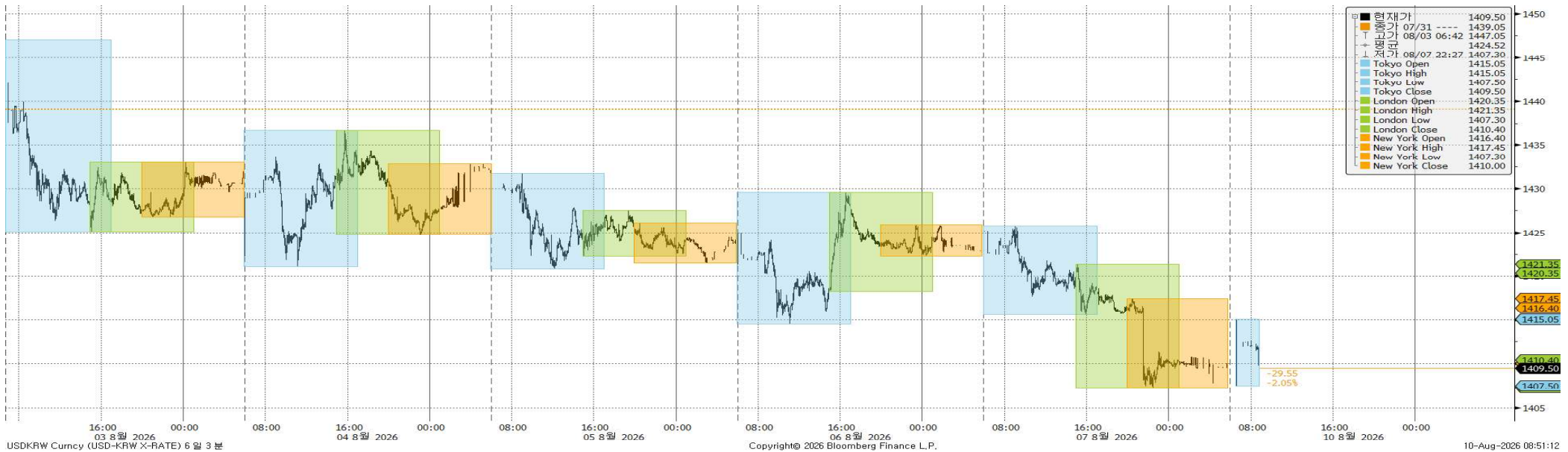


Hana FX Weekly Letters

2026. 8. 10

USD/KRW Weekly Market Trends (8/3~8/7)

종 목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원화환율	1,437.5원	1,438.6원	1,407.3원	1,409.5원	-28.0원
NDF(종합)	1,443.0원	1,443.1원	1,406.6원	1,407.7원	-35.3원



주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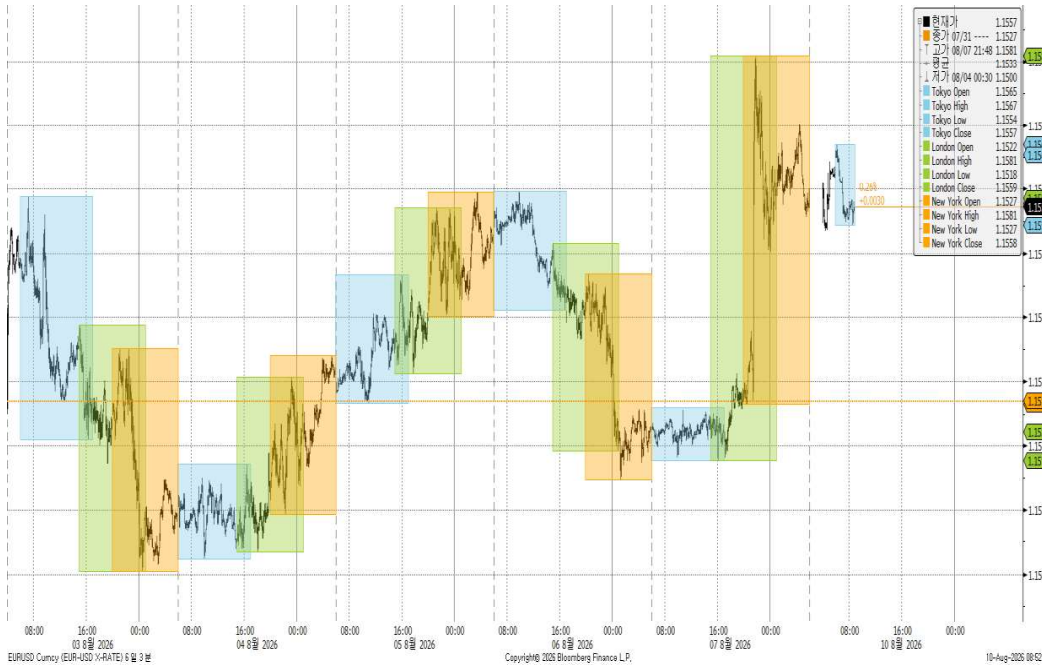
- 주초, 미-일 외환당국의 엔화 절상 유도 위한 공조 개입으로 엔화 가치가 급등, 이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으로 환율은 하락 출발. 이후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며 1,42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저가 매수세에 1,430원대 중반까지 반등하는 등 수급 공방 속에 소폭 하락에 그침
- 중반, 미 재무장관이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한 발언을 내놓고, 미-이란 협상 진전 기대감에 국 제유가도 하락한 영향으로 원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 하락세가 이어짐
- 후반,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과 역외 매도세가 우위를 보이면서 환율은 추가 하락했으나, 국내 증 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영향으로 소폭 상승 전환. 그러나 주 후반에는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매도 우위 수급 여건 지속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미국 고용 지표로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서 환율은 10원 이상 급락해 1,409.5원에 마감

주간 전망: 1,400원~1,435원

- 금주 달러/원 환율은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와 수급 요인이 겹치며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우선,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과 달리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연준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경 계감이 완화되었음. 이는 글로벌 달러 약세 및 위험선호 심리 회복으로 이어져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수급 측면에서도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환율 하락세를 뒷받 칠할 것으로 판단
-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여기에 미국 CPI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도 달러를 지지하며 환율 낙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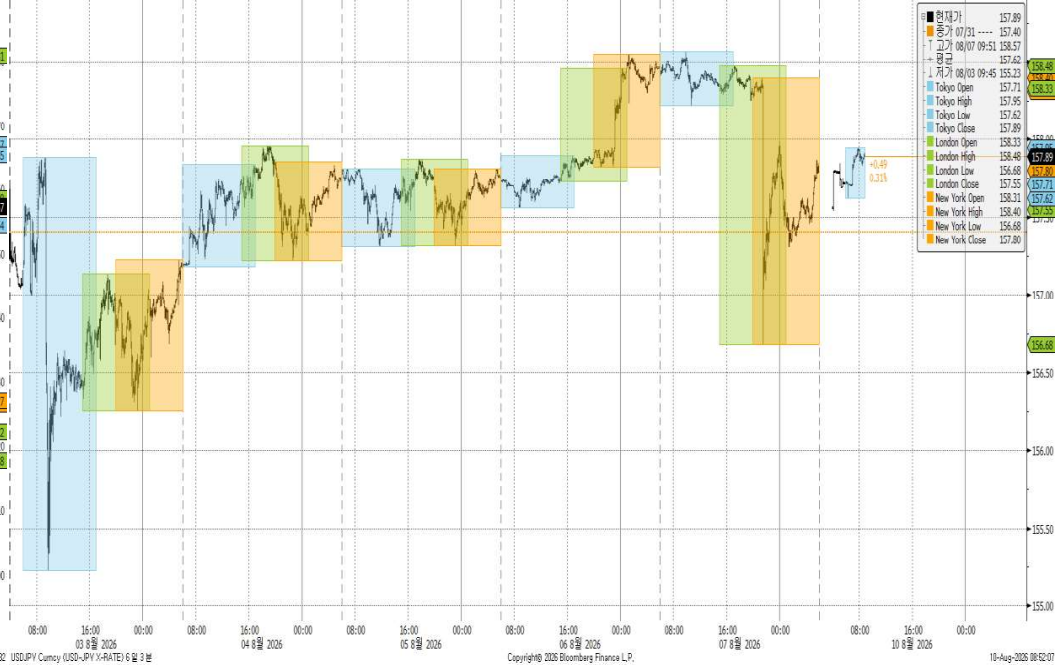
EUR/USD Weekly Market Trends (8/3~8/7)

종 목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유로/달러	1.1529	1.1581	1.1501	1.1558	+0.0029



USD/JPY Weekly Market Trends (8/3~8/7)

종 목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달러/엔	157.6	158.6	155.2	157.8	+0.2



유로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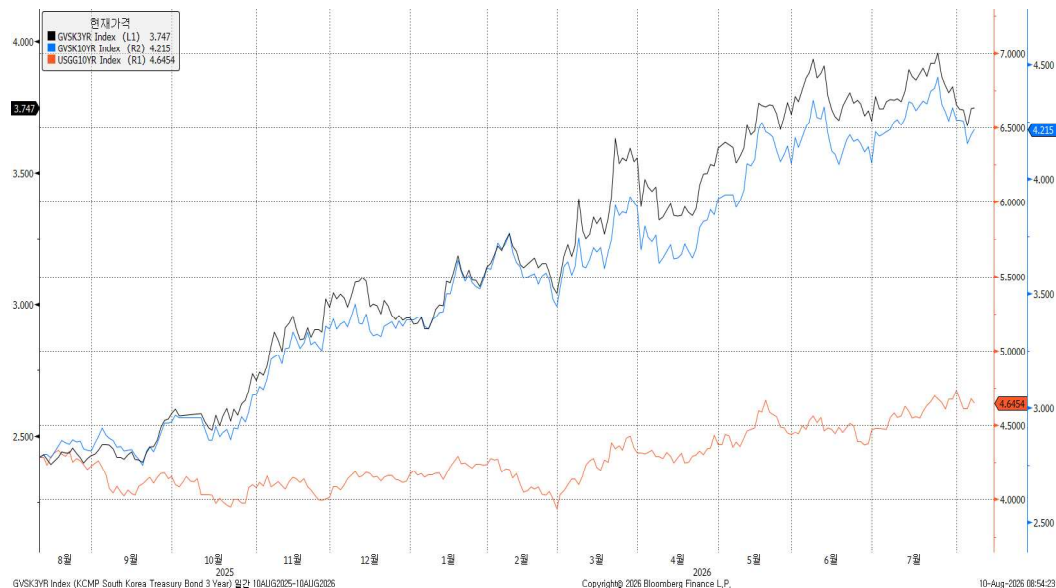
- 주초, 미국의 이란 대규모 공습 계획 철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도 미국이 엔화 매수 개입 과정에서 유로화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로 유로화는 약세로 출발.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합의 기대감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락, 이에 따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 경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강세로 전환
- 중반,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합의 도달 가능성과 더불어, 미 고용 및 서비스업 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이 겹치며 유로화 강세 흐름이 이어짐
- 그러나 후반,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입장 고수로 협상 타결이 난항을 겪자, 유가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음. 하지만,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과 달리 큰 폭 감소하며 연준 긴축 경계감이 완화되었고, 이에 유로화는 다시 강세로 전환해 1.15달러대 마감

엔화 동향

- 주초, 미-일 당국의 공조 개입 사실 발표 및 추가 개입 가능성 시사 등 적극적인 엔화 안정 의지에 힘입어 장중 엔화는 155엔대까지 강세를 기록. 그러나 이후 BOJ의 긴축 속도 불확실성과 일본 재정 여건 악화 우려 등 근본적인 엔화 약세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개입에 따른 강세 폭을 일부 반납
- 중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로 국제유가가 연일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엔화 약세 압력도 다소 주춤해지며 157엔 중후반대에서 등락
- 후반, 미-이란 간 갈등 지속 등 중동 불확실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미 국채금리도 상승하자 엔화는 큰 폭 약세를 보임. 그러나 주 후반, 미국 고용 둔화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 및 달러 약세 영향 속에 약세분을 다시 반납, 157엔대 마감

KTB Weekly Market Movements (8/3~8/7)

종 목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국고채 금리 (3y)	3.742%	3.669%	3.746%	-0.0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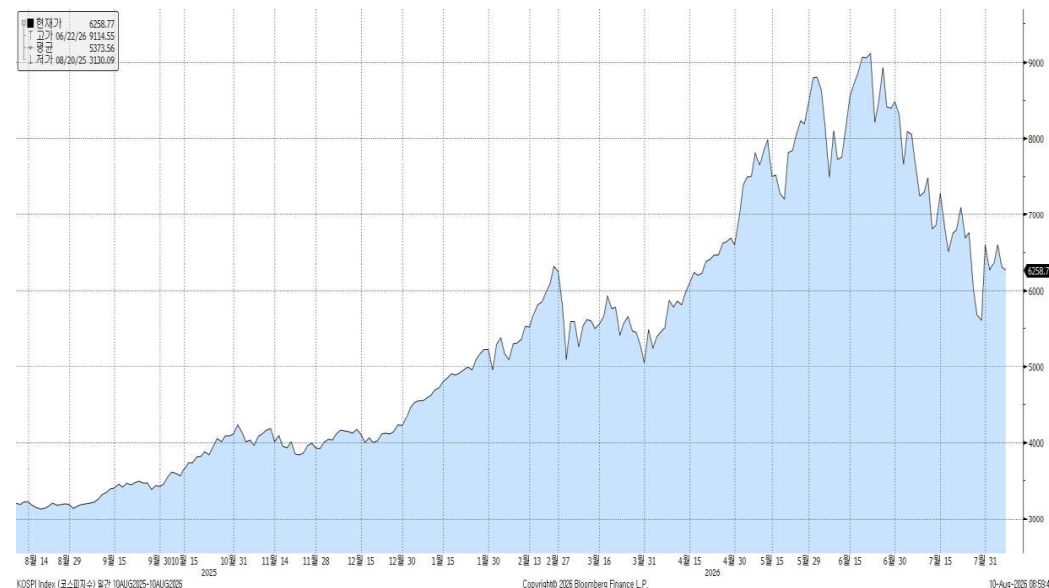
자료 : 블룸버그

주간 국고채 시장 동향

- 주초, 국고채 30년물 입찰이 장기 구간 약세에 영향을 미쳤으나 외국인 투자자 3년 국채선물 매수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혼조세 흐름으로 출발. 이어 국내 소비자물가 등 7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아 따른 영향과 외국인 투자자 매수 움직임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국고채 금리 하락 흐름 시현
- 중반, 미 재무장관의 호르무즈 재개방 언급 등에 따른 국제 유가 급락 속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감소한 영향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급락
- 후반 들어, 전일 거래의 큰 폭 금리 하락에 따른 레벨 부담 등으로 국고채 시장 약세 전환하는 양상 나타난 가운데, 주 후반, 중동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국제유가가 2% 넘게 오른 영향이 국내외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상승 흐름 마감

KOSPI Weekly Market Movements (8/3~8/7)

종 목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KOSPI	6,358.2pt	6,674.6pt	6,158.7pt	6,258.7pt	-336.68pt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뉴욕증시의 빅테크 호실적 등이 매수세를 자극한 영향과 주말 예정이던 트럼프의 대이란 군사 작전 취소 등이 투자심리 완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 상승폭이 컸던 영향을 반영하며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크게 하락하며 출발. 이어 미 빅테크의 상승 흐름 반영 속 장중 큰 폭 등락을 나타낸 코스피는 장후반 상승 전환하며 6,300선 회복 시현
- 중반, 역대급 폭등락을 나타내던 코스피는 미 재무장관의 호르무즈 개방 관련 합의 시사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및 미 AI 관련 기술주들의 호실적 등으로 큰 폭 상승세 지속
- 후반 들어, 연 이틀 상승했던 코스피는 전일 미 기술주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반영되며 대형 반도체주 약세 등으로 큰 폭 하락 전환. 이어 주 후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투자심리 약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강화 등으로 하락 마감

주간 주요 경제지표 일정

[illegible]